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2강 (안연희)

Epic History Lecture 2 by An Youn-hee

“하늘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과 그 뿌리 (The Roots of the Korean Han People Chosen by Heavenly Parent)”

Translated by: Akiyo Kishimoto

First Edit by: Motomi To

00:00:14:12 - 00:01:03:29

대단한 우리 선배님들이자 우리 천일국의 지도자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주평화사관학교 신학과의 교수로 있으니 천일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누구보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천일국 시대에 참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 심정권과 하나 돼서 먼저 외쳐라.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아직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고 또 고민했던 내용들을 조금 녹여내서 이 부분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I be able to lecture in front of our great seniors and leaders of Cheon Il Guk? I thought that they would have to give me strength. As a theology professor at the Universal Peace Academy teaching student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Cheon Il Guk, I should be the first to listen to True Parents' words and become one with the realm of heart that True Parents most desire in the era of Cheon Il Guk and proclaim it first. I think that was the intention. Although I am not sure yet how much my shouting will reach your hearts, I will try to tell you about the things I felt and pondered about in this second lecture.

00:01:03:33 - 00:01:51:21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제목을 놓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대서사시잖아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래서 이 서사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입부의 말씀이 피피티의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제가 왜 도대체 이 시대의 천일국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이라고 하는 정말 섭리적으로 정말 6천년 역사가 고대해 왔던 그 한 때를 앞두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한민족 대서사시를 말씀하시고, 대서사시를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뮤지컬로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까지 하실까 저도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Please listen well. Thank you. Now let me first say a few words about this title. The *Epic History*. So, I will briefly talk about this epic and get started. The words in the introduction are not included in the PowerPoint presentation, but I wondered why True Mother would talk about The *Epic History* express it in a painting, prepare a musical and even tell us to teach ourselves in this way, just before the era before the entrance of Cheonil Sanctum in Cheon Won Gung of Cheon Il Guk, a truly providential time that has been longed for in 6,000 years of history. Honestly, I had to think deeply.

00:01:51:22 - 00:02:30:54

왜 갑자기 우리 참부모론 강의도 이미 있었고 참부모님 생애 노정 강의도 있고, 우리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말씀하실까? 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화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 문화 속에서 고대부터 있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또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공부를 했던 그런 어떤 저의 경험과 이해를 조금 녹여내서 제가 고민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hy, after we have already had lectures on *Chambumo Ron* (Discourse on the True Parents), lectures on True Parents' life course, and many other things we have done? I wondered, "Why is she talking about The *Epic History* again?" I focused on religious studies, so I read up on many myths and other related contents. I studied various contents that have existed in religious culture since ancient times, and I also studied the significance of ep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reflections by incorporating some of my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00:02:30:59 - 00:02:40:49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사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서사시가 역사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When you think of an epic, what comes to mind? Is it an epic history? Or is it mythology?

00:02:40:54 - 00:03:21:20

신화는 뭐고 역사는 뭘까요? 아까 아마 이기식 사무국장님께서 이것을 그 실증적인 역사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아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종교의 역사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신성한 이야기가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죠. 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신들이 이 세상의 질서와 그 운행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들을 거룩한 어떤 이야기라는 신화의 형태로 전승해서 많은 종교가 그것들을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또 의례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What is a myth and what is history? I think Executive Secretary Lee Gi-shik said earlier that we shouldn't look at this as empirical history. In fact, in the history of religion, there are stories that are very sacred and told as myths. They are the stories of gods. How gods created the world, and how and what gods do to manage the order and operation of this world. These are passed down in the form of sacred stories called myths, and many religions express them as the content of their faith and even as rituals.

00:03:21:25 - 00:03:52:32

그리고 우리는 역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인간입니다. 어떠한 지금 현대의 실증적인 역사 속에서도 신이 행위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증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이야기가 역사의 어떤 그 스토리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And we know what history is. History is the story of humanity. What did people do? The actors in history are people. In any modern empirical history, gods do not appear as the actors. Right? So, the stories of humanity that we can specifically verify, confirm with our own eyes, and objectively talk about through records are included in the stories of history. But myths are stories about gods.

00:03:52:37 - 00:04:42:11

신화속에는 인간이 신격화된 인간은 등장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화의 주인공은 신화의 행위자는 신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부모님. 서사시는 뭘까요? 서사시는 신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도 함께 합니다.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온, 하늘부모님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가 서사시라는 장르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서사시는 여러 영웅 서사시도 있고, 각국의 건국 서사시도 있고 있는데, 서사시라고 하는 장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종교적인 표현으로 얘기해온 종교가 있습니다.

In myths, people who are deified appear, but strictly speaking, the protagonist of the myth is a god. For us, it's Heavenly Parent. What is an epic? An epic is a story of how the gods govern and work together with humanity in history. Humankind is also present in it. The story that gods and people created together, with Heavenly Parent as the main character, has been expressed in the genre called epic. There are epics of various heroes, and epics of the founding of each country, but there is a religion that best expresses an epic and through it tells its own history and religious expressions.

00:04:42:11 - 00:05:22:36

혹시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서사시라고 하는 그 문학적인 장르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전승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종교가 힌두교? 힌두교에도 서사시가 물론 있습니다. 이 일본 신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서사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을 표현해온 종교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유대교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I don't know if anyone knows this. Which religion has the best epic, which could be a literary genre or a religious expression, and has a tradition that corresponds to it? Could it be Hinduism? Of course, Hinduism also has epics. Japanese Shintoism may have them too. In fact, if I were to choose one religion that has expressed its faith through the expression of epics more than any other religion, I would choose Judaism. I think you may have already guessed it.

00:05:22:41 - 00:05:57:16

유대인들은 사실은 전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가졌던 시기가 지극히 짧습니다. 대부분은 나라 없이 굉장히 핍박받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민족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분이 유대교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유대교 역사도 연구하시고,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사시야말로 에픽이야말로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The Jewish people actually only had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n their entire history in which they had their own nation. Most of their history was spent as a people without a nation and were severely persecuted as they kept their faith in such a diaspora. There is a very famous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named Frank Moore Cross. He studied Jewish scriptures and history, and he said that epics, or epic poems, are the form that best shows the religious expression of the Jews.

00:05:57:21 - 00:06:37:06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역사와 신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함께 역사해 오셨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서사시라고 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역사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뜻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구약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원래는 그 탈출기부터 시작을 해요.

Why is that? The Jewish people don't distinguish between history and mythology. It is a religion that believes that God has been present and worked together with them throughout history. But when did these Jews confess, through the form called epic, that their entire history from creation to the present is the history of the chosen people selected by God, and that God's Will was to establish them as the chosen people? In the Bible, the Old Testament starts from Genesis. But the historical record of the Jewish people did not start from Genesis. In fact, it originally started from the Book of Exodus.

00:06:37:06 - 00:07:13:31

사실은.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탈출기의 기록조차도 유대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조차도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제국에 쓰여져 있는 기록된 역사서에 없어요. 구약성경의 이 이야기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책 속에는 정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 남조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바빌론 포로시기에 바빌론 대제국의 영광속에서 자신들은 초라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Actually, we know it as the Book of Exodus, but even the record of Exodus and the story of the

Jewish people escaping from Egypt is not in the historical records written by any empires around it. This story in the Old Testament isn't even recorded in any objective and empirical history book. But these people, Babylon, and the southern kingdom an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ere destroyed. During their captivity in Babylon, they were living a miserable life of slavery in the midst of the great Babylonian empire's glory.

00:07:13:36 - 00:08:04:03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민족인데 그런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 민족의 하나님 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유대 민족의 역사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 민족의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곳이 가장 대표적인 그 서사시의 형태입니다.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고요. 하늘부모님이 정말 지극히 비참해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경륜해 오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불렀던 그러한 역사고요.

They are a people blessed by God, but in such a dark and desperate situation, they confess that not only the God of their people, but the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established them through their ancestors as the chosen people. Through that, they confess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from creation to the present with faith. That is the story in the Torah in the Jewish people's Old Testament. That is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of the epic. It is not objective history. It is a history that was called forth through a confession of faith that Heavenly Parent chose the Jews, who seemed extremely miserable and objectively extremely weak, and worked the providence through them to save all of humanity.

00:08:04:08 - 00:08:50:15

그것을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불렀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서사시가 뭐고 왜 이 시대에 서사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 유대민족의 그 서사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어떤 신앙고백을 했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하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오셨고, 이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굉장히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노래의 가락과 같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 장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서사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They sang this by the rivers of Babylon. They sang it through a song. I will briefly explain what that means at the end. You may ask, "What is this epic and why is an epic needed in this age?" Through the epics of the Jewish people, I will answer questions such as, "What kind of confession of faith did the Jewish people make? How are we here now? How did Heaven create this position, lead us to it, and what does it mean?" This confession of faith isn't done in very rational language, but through a story, a grand story, like the melody of a song. This is an epic. I apologize for the long introduction.

00:08:50:15 - 00:09:26:43

그런데 두 번째 강의는 하늘부모님께서 선택한 한민족과 그 신앙의 뿌리라는 강의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참어머님 말씀을 같이 훈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기식 사무국장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지만 함께 한번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부모론', 이것은 한민족 선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2024년 8월 2일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However, the second lecture is about the Korean Han people chosen by Heavenly Parent and the roots of their faith. Before sharing this message, I would like to read True Mother's words together. It overlaps with what Executive Secretary Lee Gi-shik said earlier, but let's read it together, "[The era of Cheon Il Guk is a new history. The holy scripture of Cheon Il Guk is *Chambumo Ron*, which is revealed in the *Epic History*."](#) (speech at Cheon Jeong Gung) This is what was said on August 2, 2024.

15

00:09:26:43 - 00:09:58:46

하늘이 독생녀를 탄생시킨 선민으로서 걸어 나온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청정궁 조회말씀) 또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승리한 참부모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 년이 걸렸고, 하늘부모님은 힘든 구원섭리역사와 탕감복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인물을 세워 복귀섭리를 하는데 책임하지 못하면 반드시 탕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This tells the historical fact and truth as the chosen people who gave birth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of Heaven. (September 30, 2024, Cheong Jeong Gung Assembly Speech) Let us also look at the second speech together, "The Creator's dream is to be with the victorious True Parents on earth. However, because of the Fall of the first human ancestors, it took 6,000 years, and Heavenly Parent had no choice but to carry out the arduous history of the providence of salvation and the history of restoration through indemnity. He established the people of Israel as the central figure in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and therefore, you must know that if you fail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indemnity will inevitably follow."

00:09:58:51 - 00:10:33:12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천 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4천 년 동안 중심인물이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탕감을 치러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서사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은 아시아의 해 뜨는 나라를 선택해서 선민으로 길러나오면서 1943년 독생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한민족 역사는 동방의 선민의 스토리입니다.'

Does it make sense that it took 4,000 years for the individual level to reach the national level? The Creator cannot trust fallen people. The central figures have not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y for 4,000 years. You have to pay indemnity to rise up one level. The *Epic History* is being made because God cannot trust fallen people. Because the beginning and end of our Almighty God must be the same, He must succeed. That is why Heavenly Parent chose the country of the rising sun in Asia, raised them as the chosen people, and gave birth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in 1943. The history of the Korean Han people is the story of the chosen people of the East."

00:10:33:13 - 00:11:19:18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민족. 참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을 모신 선민조국으로,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교육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늘이 역사의 시작부터 어떻게 준비해 오셨고, 그렇게 해서 이어온 이 한민족 선민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 한민족이죠. 모든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수렴돼서 어떻게 천일국의 새 문화를 창건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실 거고요.

“You are the Korean Han people who gave birth to the only begotten Daughter. You who have been blessed by True Parents must be able to take responsibility. As a chosen nation that serves Heavenly Parent,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educate others about Heavenly Parent.” True Mother said these words. Here, we will think about how Heaven prepared to se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o this earth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and how the history of the Korean Han people, the chosen people, has continued in this way, and how we, the Korean Han people, are blessed through True Parents now in this era. We will think about how the history of all of our Korean Han people can converge and how we can create the new culture of Cheon Il Guk, focusing on these words.

00:11:19:23 - 00:12:07:38

오늘 아마 8시까지 긴 여정인데 저는 그 첫 시작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부모님께서 어떻게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도 우리가 참부모론에서 배우고 많이 알고 계시듯이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이 꿈이 있으셔서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꿈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단계적으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동식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과는 다른 격위에서 하늘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격위를 주고 싶으셨죠.

Today, I will probably give a long lecture until eight o'clock, but I will start with the beginning. First, the beginning is about how Heavenly Parent chose and prepared the Korean Han people. As we have learned and many of us know from *Chambumo Ron*, Heavenly Parent had a dream, and with his dream of love, he created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Stage by stage, after creating

light, the sky, the earth, the sea, the sun, the moon, and all animals and plants, he finally created human beings. When Heavenly Parent created human beings, Heavenly Parent wanted to give them a different status from all other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created by him, calling them his children.

00:12:07:40 - 00:13:03:23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책임분담을. 성장기간 동안의 책임분담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완전히 일체가 된 신인애일체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하늘부모님의 뜻을 받들지를 못했어요. 하늘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되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을 자기를 중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부모님은 어머니 말씀 중에도 있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부모이시고, 또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책임과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는 간절한 어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타락한 바로 직후부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Therefore, what was given only to human beings? A portion of responsibility. Heavenly Parent hoped that people would fulfill their portion of responsibility during the growth period and become completely one with his love, thus achieving the unity of Heavenly Parent and humanity in love. However, Adam and Eve did not follow Heavenly Parent's Will. They could not become one with his heart. They became self-centered and greedy, and eventually Fell. However, as True Mother said, Heavenly Parent is the parent of all humanity, and he is also the Creator who created humanity and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Therefore, he began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to save humanity immediately after the Fall,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Creator and the earnest heart of a parent who truly loves his children.

20

00:13:03:28 - 00:13:35:04

그 복귀섭리가 지금 6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귀섭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원리를 공부하시고 또 후편을 강의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서는 먼저 긴 시간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가 선의 세계를 이루고 선의 가정을 이루고

선의 혈통을 통해서 후손을 번식했어야 되는데, 악의 혈통을 번식하고 악의 세계를 이루고 아담가정에서부터 살인이 일어나고 최악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This providence of restoration has been going on for 6,000 years now. But you all know the history of this providence of restoration very well, right? Because you studied the Divine Principle and lectured on the latter part of the subject. So over a long period of time, Heavenly Parent should have first created a world of goodness through Adam and Eve. They should have formed a family of goodness and given birth to good descendants through good lineage. Instead they reproduced an evil lineage, created an evil world, and murder occurred in Adam's family, creating a history of sin.

21

00:13:35:05 - 00:14:14:41

그래서 하늘이 온전히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이 하늘만이 택하실 수 있는 하늘만이 대할 수 있는 분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노아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노아 이외의 노아가정 이외에 다른 모든 세계를 멸하시고 노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자식 후손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두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 셈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이 민족을 셈의 후손 가운데서

So there was no one whom Heaven could choose wholeheartedly. In the midst of that, Heaven looked for one person whom only He could choose and interact with. The person was Noah. As you all know, the Bible tells the story of God destroying the entire world except for Noah and his family, starting again through Noah and building a new creation through him. Noah had three sons, and specifically, not through the other two sons, but through the third son, Shem, Heavenly Parent established the nation among his descendants.

22

00:14:14:46 - 00:14:52:40

하늘이 앞으로 구원 섭리를 하실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 그 민족의 기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예를 셈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셈족의 조상들이 서쪽에서는 수메르 문명과 연결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유대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늘이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해서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실 수 있는 혈통적인 기반을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Through God's lineage, Heaven sent the only begotten Son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who would carry out the providence of salvation in the future to lay the national foundation. Therefore the descendants of Shem are often called the Semites. The ancestors of these Semites are connected to the Sumerian civilization in the west, and they ultimately form the Jewish people. Heaven established the Jews as the chosen people, and conducted works to lay the lineal foundation to send the only begotten Son and only begotten Daughter to the Jewish people.

00:14:52:44 - 00:15:28:35

23

그리고 근데 아까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는데, 이 셈족의 후예로서 찾아세우신 유대민족이 만약에 책임 다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하늘은 그 셈족의 후예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어떤 일군의 무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한민족의 어떤 기원이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셈족은 문화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몇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한 민족입니다.

However, God said that he could not trust fallen people. Because Adam and Eve fell and fell again, he began the providence of restoration. In case the Jewish people, who were descendants of the Semitic people, fail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God sent a group of people from among the descendants of the Semites to the east. And we can say that they eventually became the origin of the Korean Han people. In particular, these Semitic people made several import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cultural history.

00:15:28:49 - 00:16:03:46

24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알파벳의 기원이 페니키아 언어에서부터 알파벳이

기원이 됐고,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이 셈족의 유대민족과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이전에 그 주변에 있었던 문화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이 셈족을 통해서 유일신 사상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자연물들을 보고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신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I believe this has significance. The origin of the alphabet is from the Phoenician language. Afterwards, monotheism came about through the Semitic Jewish people. This was very unique among the surrounding cultures before that. Before monotheism was revealed in history through the Semitic people, most people believed in polytheism. This is because when people saw nature and various phenomena that were superior, they believed that there were many gods.

00:16:03:48 - 00:16:41:16

25

그들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언어도 굉장히 정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셈족을 통해서 하늘은 유일신 하나님,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알파벳, 굉장히 정교한 문자인데 이 정교한 문자를 통해서 하늘이 진리를 계시하시고 또 하늘의 그 심정을 인간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tried to solve their problems by relying on them. In fact, the language that could express the very sophisticated words of God's revelation was not developed enough. However, through these Semitic people, Heaven gave us faith in the one and only God, the creator of the entire world. Therefore, we can confess that through this very sophisticated alphabet, Heaven gave us a language that can reveal the truth and convey his heart to humanity.

00:16:41:21 - 00:17:10:59

그래서 이 셈족의 후손 중에 일부가 동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우리 한민족의 기원이 한반도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한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한민족의 기원은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사실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고대 중국의 역사서의 일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동이족들이 지금 한반도 보다 더 넓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을 세우게 됐는데, 이 고조선의 역사가 어떻게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So some of the descendants of this Semitic people migrated to East Asia and settl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original land of the Korean Han people. They later formed the Korean Han people. The origin of the Koreans is said to be the Eastern Yi (Dong-Yi) people. In fact, there are records of the Eastern Yi people in some ancient Chinese history books. In any case, these Eastern Yi people established Gojoseon based on the Manchurian region, which is larger than the current Korean Peninsula.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history of this Gojoseon.

00:17:10:59 - 00:17:48:32

27

사실은 역사가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 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동쪽으로 보내신 이 한민족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기대라고 할 수 있는 한씨 왕조를 세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씨 왕조를 통해서 그 독생녀 참여머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고대에 그 한민족의 특징에 대해서 좀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요.

Actually, that is for historians to do. Rather than telling such a story, we can confess that the Korean Han people who were sent to the east established the Korean Han Dynasty, which can be called a kind of foundation of the kingdom of God in a broader sense. And we can say that through the Han Dynasty, the foundation for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was created. Actually, there are not many historical records left, but there are several record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an people in ancient times.

00:17:48:33 - 00:18:35:12

28

그런 것들을 보면 한민족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애호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통해서 늘 하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고요. 또 이 고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남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성 사제를 두어서 하늘의 뜻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또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그 어떤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ose records, you can find ones that say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Han people was that they had a certain ritual of offering sacrifices to Heaven and that they were a very peace-loving people. They were a people who always trie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Heaven through a certain culture, which can be called a certain ritual of offering sacrifices to Heaven. Also,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these ancient Korean Han people, there are records that they had female priests as well as male leaders. Receiving revelations about God's Will, they tried to run the country and guide the people while maintaining a center to attend.

00:18:35:13 - 00:19:17:59

29

이것도 사실은 역사가들이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야 될 주제지만 신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개 공주가 신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고대 역사를 보면 그런 제도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제천 의식조차도 남성을 중심으로한 그러한 어떤 문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들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늘을 모시고 그 하늘에게 제사 하는 한민족은 왜 그러면 하늘을 모시고 하늘에게 제사했냐.

This is actually a theme that historians need to study more specifically, but it is said that there was a system of priestesses (Shinnyeou), and in most cases, it was princesses who became priestesses. Looking at ancient history, we can confirm that through such systems, even the rites of offering sacrifices to Heaven were not only a culture focused on men, but also a system where female leaders sought to understand Heaven's Will and follow it. Specifically, why did the Korean Han people worship and offer sacrifices to Heaven?

30

00:19:18:04 - 00:20:16:42

우리 민족 한민족은 하늘의 후손이다 라고 한 천손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하늘이 보낸 하늘의 아들이 지금 한민족을 세웠고, 한민족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모두 하늘의 후예다 라고 하는 하늘의 후손이다 라고 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을 섬기는 그 기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늘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토가 작아졌을 때 혹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에도 항상 우리가 천손으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적 자부심의 기원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 한국 민족들이 이렇게 뚝뚝 뭉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던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나라고 할 때, 이런 천손 사상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is because our people have the consciousness of being descendants of Heaven. As is well revealed in the founding myth of Gojoseon, Heaven sent a son who established the current Korean Han people and became their origin, so they all have the consciousness of being descendants of Heaven. Because they have such a consciousness, they offer rituals to Heaven with the heart of serving their ancestors and their origin. That is why, even when our territory became small or when we went through difficult times culturally and historically, we always thought that we, as descendants of Heaven, must protect our people's pride which became the origin of our national pride. When we ask what the basis was for the Korean Han people to come together like this and sacrifice themselves to protect the country when times were most difficult, we can see that it was because of this ideology of being the descendants of Heaven.

00:20:16:46 - 00:21:00:50

31

그 다음에 이러한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늘은 독생녀를 보내시내고 또 재림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한 성씨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주 한씨와 남평 문씨를 한민족의 여러 많은 가문들 중에서 하늘이 특히 준비하셨고, 그 가문의 어떤 조상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업적을 통해서 정말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세계, 널리 그 고조선의 이념에도 나오는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가르치고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Han people, Heaven prepared special families in order to se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and also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So, among the many families of the Korean Han people, Heaven especially prepared the Cheongju Han clan and the Nampyeong Moon clan. Through the various achievements of certain ancestors of those families, Heavenly Parent taught and made known how his children should live, and how to realize the world He desires. He taught a certain culture that widely benefits the world and allowed them to live together in peace, as is also shown in the ideology of Gojoseon.

00:21:00:55 - 00:21:48:06

32

남평 문씨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참아버님의 생애노정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주 한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한씨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청주 한씨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시조라고 합니다. 완전히 기원은 아니고 확인 가능한 중시조는 사실은 이제 한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인데요. 고려가 개국될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시조, 중간 시조인데, 사실 이 한란의 조상은 고조선으로부터 삼한으로 내려온 한우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주 한씨의 기원이 되었고, 이 한우량의 35대손인가요?

You probably heard about the Nampyeong Moon clan from True Father's life course, so this time I will talk about the Cheongju Han clan. It is actually difficult to completely confirm the records of the Cheongju Han clan. It is said that the middle ancestor is recorded in the Cheongju Han clan genealogy. It is not the exact origin of the clan, but the middle ancestor who can be confirmed is actually a person named Hanran. He existed when Goryeo was founded. This person is the middle ancestor. In fact, Hanran's ancestor was a person called Han Woo-ryang who came down from Gojoseon to Samhan, and he became the origin of the Cheongju Han clan. He may be the 35th generation descendant of this Han Woo-ryang?

00:21:48:06 - 00:22:26:10

33

어쨌든 그 한창 후대에 이 한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청주 한씨의 중시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한지역 이 청주 지역이 충청도지역이고 옛날 백제지역이고 백제의 전신은 삼한인데 이

지역에 왔을 때 내려와서 한씨 왕조를 세웠다, 한왕조를 세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한씨의 한나라 한자가 삼한 할 때 한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자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때 이제 한 씨가

In that later period, this person called Hanran is recorded as the middle ancestor of the current Cheongju Han clan. The Mahan region, the Cheongju region, is the Chungcheong region, which is the old Baekje region, and the predecessor was Samhan, and it is said that when Hanran came down to this region, he established the Korean Han dynasty. So, the Chinese characters of the country of the current Cheongju Han clan are also the same characters of the country during the Samhan period. It is also said to be the same Chinese characters of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The story is that at the time,

00:22:26:15 - 00:22:58:39

34

대한민국에는 예전엔 성씨가 없다가 여러 성씨가 생겼는데 여러 성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중에 하나가 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중시조인 한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한란은 우물을 파서 청주 고을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우물정자 모양의 사각형 모양의 깊은 우물을 팠대요. 그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을 왜 팠을까요?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used to be no surnames. Later, many surnames were created, and among them, one of the oldest surnames is known to be Han. If we look at the story of the middle ancestor, Hanran, it is said that he dug a well and settled down in Cheongju. He dug a deep, square-shaped well so that many people could use it. That is the story. But why did he dig this well?

00:22:58:44 - 00:23:47:13

35

우물을. 예나 지금이나 물은 정말로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삼황오제들도 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판 이유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은 우물을 팠고요. 이 우물을

통해서 청주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나중에 고려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백제의 견원을 치러 갈 때 군사 10만대군을 이끌고 이 청주 지역을 지났는데, 이 우물이 마르지 않은 이 물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 군대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개국 공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A well. Water has always been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governing a nation, in a community. That is why the Three Sovereigns and Five Emperors of China also controlled water. So the reason he dug a well was to provide clean water for people to drink. He dug a well that never dried up. Through this, he practiced love that widely benefited the people of Cheongju. There is a story that when the founder, Yi Seong-gye, who later founded Goryeo, went to attack Baekje's Gyeonwon, he led 100,000 troops through this Cheongju area, and they passed by this well. Because of this well's never-drying water, the army was able to quench their thirst, and so he became the founder of a country.

00:23:47:28 - 00:24:28:46

36

이것은 그냥 청주 한씨의 족보와 그 일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한씨 가문을 통해서 하늘이 뭔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고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청주 한씨의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한씨가 천손으로서의 그 역사적 정체성과 천손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화를 저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is is just a story passed down from the genealogy of the Cheongju Han clan and its anecdotes. However, through this story and this clan, we can see that Heaven taught us the spirit of loving the people, benefiting them widely, and the image of a leader who seeks to help others. We can see that through the Cheongju Han clan,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was born. Thus, we can confirm that this clan passed down to their descendants the historical identity of being a descendant of Heaven, teaching them how a descendant of Heaven should live, and instilling that pride in them.

00:24:28:51 - 00:25:11:27

37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한민족을 선택해 오셨고, 한민족 가운데 두 성씨를 하늘이 준비해 오셨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하늘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준비시키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에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가장 최초에 한민족의 국가를 세운 그 단군왕검의 이야기를 단군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Then, having looked at how our Korean Han people were chosen and how Heaven prepared two families among them, the second part is how Heaven prepared the Korean Han people to have roots of faith in attending Heavenly Parent. Let us examine this part under the title, "The Root of Faith of Attending Heavenly Parent". As many of you may know, the Korean Han people have a foundation myth. The Dangun myth tells the story of Dangun Wanggeom, who founded Gojoseon (Old Choson), the first kingdom of the Korean Han people.

00:25:11:32 - 00:25:51:44

38

사실 단군신화는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군신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몽고가 침략을 했던 시기에도 단군신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사실은 그것도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역사적인 한민족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강하게 강조되고 이야기가 확장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신화는 구전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들이 하나로 다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단군신화를 보면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In fact, many historians talked about the Dangun myth appear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even before that, during the Mongol invasion, the Dangun myth existed. In fact, it was not even created during that period, but rather it was a story that had been passed down orally since earlier times. It was emphasized and expanded in order to unite the Korean Han people during a historical crisis. All myths that were passed down orally have been organized into one,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 story. If you look at this Dangun myth, there is a being called Hwanin.

00:25:51:45 - 00:26:31:29

39

환인 환자를 씁니다. 이 환자가 이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이 하늘의 왕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그 웅녀죠. 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늘을 먹고 일정 기간 동굴에서의 시련기간을 거쳐서 사람이 된 웅녀와 결합을 해서 단군이 태어나게 됐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먼저 이 '한' 그 다음에 '환', '한'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을 음차한 거라고 해요.

Hwanin uses the Chinese character "Hwan" (桓) in its name. Hwanin, the king of heaven, had a son, Hwanung, and Hwanung came down to earth and met the bear-turned-woman. There is a story about a bear who, after eating garlic and going through a period of trials in a cave, becomes a human woman. Hwanung united with that woman and Tangun was born, and Tangun founded Gojoseon. At this time, the name was first pronounced with "Han" (韓), "Hwan," (桓) and "Han" (汗). They all use different Chinese characters, thus having different meanings, but they are all said to be phonetic transcriptions of "Han."

00:26:31:29 - 00:27:26:06

40

삼한할 때 이 '한' 자, 이 모든 이 세 가지 '한'이 '환'이자 '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하나님, 하늘부모님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늘부모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늘의 아들로부터 그 후손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기원이 되는 나라를 세우게 됐고요. 특별히 세우게 될 때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과 관련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오고, 또 인간이 문화를 세우고 도시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온갖 문화적인 제도들을 법과 농사짓는 법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떤 문화를 세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we talk about the three Han (Samhan), the Chinese character "Han" that is part of its name, and all of these three "Han," "Hwan," and "Han"—all of these ultimately mean one God, our Heavenly Parent, although the expressions are different. From that Heavenly Parent, the Heavenly son was sent, and the descendants established a kingdom called Gojoseon, the origin of the

Korean Han people. When it was established, they brought with them the Pungbaek (wind god), the Usa (rain master), and the Unsa (cloud master), all of which were related to nature and could help people live. They also taught all kinds of cultural systems such as law, agricultural methods and medicine that were important for people to establish a culture, build cities and govern a country. The story goes that they established a certain culture.

00:27:26:11 - 00:28:03:56

41

그러면서 고조선의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화를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멋있는 건국이념을 발견하기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 고조선 내 이 건국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건국이념은 어떤 신화 속에서도 제가 발견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신화들은 전쟁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요.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서로 싸워서요. 권력을 가진 신이 모든 신들을 제패하고 1인자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So, it is said that the founding ideology of Gojoseon was 'Hongik Ingan' (to benefit all humanity). I studied a lot of mythology, and honestly,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such a wonderful founding ideology. In fact, this founding ideology in Gojoseon about benefiting humanity is something I found hard to discover in any myth. Most myths are filled with stories of war. They are stories about fighting. The gods fight each other. The god with power conquers all the other gods and becomes number one. Through that, the story of establishing order comes about.

00:28:04:00 - 00:28:43:39

42

그곳에서 그러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화지향적이면서 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이념이 발견되기보다는 굉장히 위계적이에요. 그리스의 신화나 바빌론의 신화는 위계적인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신화들이 많은데요. 고조선의 신화 속에서는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너무 멋있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뿐만 아니라 재세이화라고 해서 하늘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교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을 건국의 이념으로 세우게 됩니다.

After establishing that order, rather than finding an ideology that is somewhat peaceful and aims to live together with everyone, it is very hierarchical. Greek mythology and Babylonian mythology have many myths that establish hierarchical order. In Gojoseon mythology, there is this really cool expression, "benefitting all of humanity". In addition to that, 'Jaese Ihwa' (to spread the value of heaven and bring harmony to the world), which is the ideology that the Heavenly Parent came to this earth and governed and enlightened the world while staying here, was established as the founding ideology of the nation.

00:28:43:41 - 00:29:17:21

그래서 먼저 하늘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부모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고조선의 건국이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도여치라고 해서 도로써 진리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세웠습니다. 광명이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을 상징하는데 빛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념도 그 고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건국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So the founding ideology of Gojoseon is that Heavenly Parent dwells on this earth, and that the Son of Heavenly Parent is here to teach humanity how to live. Next, they established the ideology of 'Ido Yeo Chi', which is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moral principles. In 'Gwangmyeong Ise' (Illuminating the world through wisdom), the light symbolizes heaven both in the past and present, and the ideology of ruling the world with light is also shown in the founding ideology of Gojoseon. The kings of Gojoseon put a lot of effort into putting this founding ideology into practice.

00:29:17:22 - 00:30:06:26

고조선의 왕들은. 물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왕들도 등장하게 되지만 이러한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나중에 세워진 많은 나라들 고구려나 백제나 부여나 이런 나라들이 세워질 때에도 이것이 원형이 되어서 많은 건국신화를 통해서 반복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화들을 보면 다 주인공이 남자입니다. 남성인 아들이 왕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남성, 아들의 이야기, 하늘이 보낸 아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어머니를 상징할 수 있고 하늘이 보낸 딸을 상징할 수 있는 여성신화도 널리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there were kings who fail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but this founding ideology of Gojoseon became the prototype for many later countries such as Goguryeo, Baekje, and Buyeo, and was repeated through many founding myths. However, if you look at these myths, the main characters are all men. They are stories of male sons becoming kings. However, when I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n Han people, I can see tha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it is not only the story of the male, the son sent by Heaven, but also female myths with characters that can symbolize Heavenly Mother and daughters sent from Heaven which have been widely passed down orally since long ago.

00:30:06:26 - 00:30:40:28

그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마고신화와 바리공주신화입니다. 한국에는 할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할머니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할머니라는 말처럼 가슴 푸근해지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는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실 때 할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 푸근해지는 할머니라는 말이 마고신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고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Let me give you two well-known examples: the Mago myth and the Princess Bari myth. In Korea, there is a word called halmeoni (grandmother). Do you all have grandmothers? I don't think there is a word that warms the heart as much as the word "grandmother." When we were young, how much love did our maternal or paternal grandmother give us? When our mother and father were busy, how much love did our grandmothers give us? When you think about it this way, the heartwarming word halmeoni is connected to the Mago myth. In the myth, there was a grandmother named Mago.

00:30:40:32 - 00:31:17:55

큰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왕엄마라고 표현하시는 그거하고 되게 통하는 개념인데요.

할머니의 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큰어머니라는 뜻이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할머니는 큰어머니라는 뜻인데 옛날에 마고라고 하는 몸이 아주 큰, 그러한 그 신이 있었대요. 여성신이 마고할미라고도 부르는 여성신이 있었는데, 그 여성신이 이 큰 치맛자락에 도자기 흙을 실어 나르다가 이 세상을 이게 떨어지면 이게 섬이 되고 어떤 지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She's like a great-mother. It's a concept that's very similar to our True Mother being called 'Wang Omma (Grand-Mom, Great-Mom). The "grand" in grandmother means big, and "mother" is mother. Halmeoni means great-mother, and eomeoni means mother. Here, grandmother means big mother, and it's said that in the old days, there was a goddess called Mago who was very large. The name of the female goddess was Mago Halmi (Grandmother Halmi), and there is a story that has been orally passed down that this goddess carried porcelain clay on the hem of her large skirt, and when it fell on the world, it became an island or a new place.

00:31:17:55 - 00:32:09:08

그래서 이 마고할미와 관련된 신화는 여성이, 여성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지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또 많은 무당들 중에는 한국의 여성 종교인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존재가 이제 샤먼이 있는데 하늘에 이 샤먼들은 이 마고 할머니가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주도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있는데 특별히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고 해서 이 마고할미에 해당되는 그 할머니가 제주도에 있는 여러 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늘어머니, 큰어머니인 하늘어머니가 우주를 창조하고 또 생명,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So the myth about this Mago Halmi is the story that a woman, a female diety, created this world, and that she also created the places of the world. Also, among many female shamans, there is a female religious figure in Korea who connects heaven and earth, and these shamans in heaven say that this Mago Halmoni is their ancestor. This story also exists in Jeju Island and many other regions, but in Jeju Island in particular, there is a story that was passed down called Seolmundae Halmang, and it is about how this grandmother who corresponds to Mago Halmi created the many islands in Jeju Island. This Mother of Heaven, the great mother, the Heavenly Mother

created the universe and also became the origin of life, all life.

00:32:09:09 - 00:32:47:05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교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신의 창조 이야기는 주변화됐어요. 많이 밀려나서 민속으로 주변화되고 왜곡되기도 해요. 마고신은 원래 창조신인데 마귀할멈, 약간 이렇게 마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왜곡이 일어났지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러한 큰 어머니 마고할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민족은 아, 하늘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어머니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In fact, because Korea has been a patriarchal society centered around Confucianism for a very long time, these stories of creation by female deities were marginalized. They had been pushed out so much that they became marginalized and distorted into folklore. Goddess Mago was originally a creator deity, but she was distorted into a devilish figure, sometimes called Maggwi Halmeom (devilish grandmother). However, through these stories of the great mother Mago Halmoni that have been passed down orally, the Korean Han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things like, "Oh, there isn't only a Heavenly Father, but also a Heavenly Mother who created this world and all living things."

00:32:47:10 - 00:33:34:20

그다음에 제가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고할머니가 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말 효성스러운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공주신화인데요. 바리공주 신화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무속신화입니다. 무속은 샤먼이라고 해서 아주 고대, 고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오래된 종교전통인데요. 그 무속의 무당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존재는 '무'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인간 세계에 전하고 또 인간의 그 고통과 문제를 하늘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가 샤먼이었는데, 이 샤먼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바로 무조신이고, 이 무조신이 바리대기입니다.

The second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that if there is a story of great-mother Mago Halmoni, there is also a story of a truly devoted daughter. This is the Princess Bari myth. The Princess Bari myth is a very famous Korean shamanic myth. Musok or shamanism is an old Korean religious tradition that dates back to the ancient Gojoseon period. The Chinese character of "mu" in Musok

and Mudang (female order of shamans) has a meaning of connecting heaven and earth. So the shaman is the one who conveys Heaven's will to the human world and also conveys the pain and problems of humanity to Heaven. The god that these shamans consider their ancestor is Mujoshin (shaman diety), and this Mujoshin is Bari Daegi, also known as Princess Bari.

00:33:34:35 - 00:34:05:56

이 바리공주인데, 이 바리공주와 관련된 신화가 바리공주신화인데. 바리공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오구대왕이라고 한 나라의 왕의 일곱번째 딸로 태어나요. 공주로 태어납니다. 그 오구대왕은 여섯 딸을 낳았어요. 딸을 여섯을 낳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딸이 태어나니까 정성을 드립니다. 함께 아주 정성을 드려서 지극정성을 드리니까 꿈을 꾸게 돼요.

The myth related to this Princess Bari is the Princess Bari myth. What kind of person was Princess Bari? She was born as the seventh daughter of Ogudaewang, the king of a country. She was born as a princess. Before she was born, King Ogudaewang already had six daughters. After having six daughters, he became very angry. In order to pass down the country, he needed a son. However, as daughters kept being born, he offered sincere devotion. He offered devotion with utmost sincerity, and that is when he had a dream.

00:34:06:01 - 00:34:42:32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꿈을 겁니다. 엄청 기대를 하죠. 드디어 이제 아들이 태어나겠구나. 낳아보니까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매정하게 이 딸을 버려버려요. 이런 딸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일곱 번째에 낳은 정말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상서로운 징조를 꿈으로 보여준 그 낳은 이 딸을 버려버려요. 버렸는데, 이 버려진 이 어린 아이, 핏덩이 어린 아이를 큰 학이 이렇게 자신의 깃털로 돌봐주어왔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He dreamed that a son would be sent to him. He was very excited. He thought that a son would finally be born to him. When the baby was born, it was a daughter. He was furious. So he cruelly abandoned her. Even though he had a dream that showed him auspicious signs that she would become a king, he claimed he didn't need a daughter like that, so he abandoned the seventh daughter. He threw her away, but the story passed down is that a large crane used its feathers to

care for the abandoned child, this newborn.

00:34:42:37 - 00:35:24:09

이 버려진 이 어린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5년인가 16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대왕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데 모든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어떤 의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성을 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드리니까 니가 딸을 버렸기 때문에 죄를 받아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딸을 찾아서 저기 서역에 있는 생명수를 구해 오게 해야지 나을 수 있다,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This abandoned child was raised by a very kind grandfather and grandmother. But what happened after about fifteen or sixteen years? The great king became gravely ill and suffered immensely. No medicine worked, and no doctor could cure him. He prayed earnestly once more, asking, "How can I recover?" When he prayed earnestly, he received a revelation that he had become ill as a consequence of the sin of throwing away his daughter. The revelation instructed him that he had to find his daughter and have her bring him the water of life from the Western Regions to heal him.

00:35:24:14 - 00:35:57:06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서역에 있는 딸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못 찾으니까 우선은 서역에 있는 서천 서역국에 가서 그 생명수를 구해오라고 신하들한테 시켜요. 아무도 안 간다고 해요. 거기는 왜?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서역국은 저승이에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려야지, 걸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 다 못 가겠다고, 어떻게 서역국에 갑니까? 궁궐에서 아주 호화롭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섯 딸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However, how could he find his daughter in the Western Regions? Since he couldn't find her, he first ordered his subjects to go there and retrieve the water of life. But no one wanted to go there. Why did they say they wouldn't go there? The Western Regions is the afterlife. You have to risk your life and even face death to go there. No one wanted to die, so they all said they couldn't go. How could they go to the Western Regions? Even the six daughters, who grew up in the palace in luxury, receiving lots of love from their father and mother, said they couldn't go.

00:35:57:10 - 00:36:33:05

제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이 혹시 살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소문을 해보라고 하니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준 이 일곱 번째 딸 바리공주가 살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찾아옵니다. 그 딸을 찾아와서 니가 목숨을 걸고 서천의 서역국에 가가지고 생명수를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버린 부모가 나를 불러다가 죽을 고개를 넘어가서 약을 구해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They said they couldn't do that. So, in the end, the king asked them to investigate if this daughter was still alive. They discovered that the seventh daughter, Princess Bari, who was raised by the grandparents, was alive. So, they went to find her. They asked her to risk her life and go to the Western Regions of Seocheon to get the water of life. What would you have done? If your parents, who abandoned you, had called you and told you to cross the pass of death to get them medicine, how would you have felt?

00:36:33:10 - 00:37:16:15

저 같으면 그 부모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공주는 구해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났던, 그래서 결국에는 천신만고 끝에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그것을 생명수를 구해다 부모를 살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한민족의 효정의 신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요. 정말 부모의 심정과 완전히 하나되어서 부모를 구한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여러분,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되어서 아버지를 구한 아들이 나오니

If it were me, I don't think I would even want to take care of my parents. But Princess Bari said she would save them. So, she set out on that journey, and in the end, after going through all kinds of indescribable hardships, she found the water of life and saved her parents. I think this myth reflects the hyojeong (filial heart for God) of the Korean Han people. If you look at the Old Testament, there is a son who completely became one with his parent's heart and saved them. Who is that son? He is a son who completely became one with his father, even when his father tried to kill him, and he ultimately saved his father.

00:37:16:20 - 00:38:00:25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거예요. 번제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늘이, 이삭을, 아들을 그 귀한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묻지 않았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과 완전히 하나되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3대에 걸쳐서 하늘 혈통을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쌓은 그 아들. 그 아들이 어찌면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독생자의 어떤 탄생의 기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저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부모가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모를 사랑했다고 하는 아담과 해와는 하늘의 사랑을 온통 받았습시다.

That son was Isaac. The incident was actually due to Abraham's mistake in making the burnt offering. When Heaven told Abraham to offer up Isaac to make up for his mistake, his precious son, the son he had at the age of 100, did not ask, "Why are you trying to kill me? Why are you trying to offer me up as a sacrifice?" Instead, he became completely one with his father's heart and, through that, eventual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Heavenly lineage to be restored through the three generations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at son created the foundation for the birth of the only begotten Son in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mythically and symbolicall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Han people, the children love their parents even though the parents abandoned them. Adam and Eve received all of Heaven's love.

00:38:00:30 - 00:38:35:09

그런데도 하늘을 배반했어요. 하늘의 사랑을 온통 받았던 아담과 해와가 하늘을 저버렸던 그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하늘은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운 이 바리공주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무조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으로 추대가 되고 기념이 되고 많은 무속 신화에서 굿을 할 때 이 바리공주의 이야기를 무과를 통해서 의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ey betrayed Heaven. In order to restore the foundation that was broken, Heaven raised the standard where, "though my father and mother abandoned me, I loved them and saved them." Princess Bari, who established this standard, ultimately becomes Mujoshin (shaman god) who could connect heaven and earth. So later, she was elevated to a goddess and honored, and in many shamanic myths, the story of Princess Bari is told through rites and rituals when

performing 'kut' (Korean shamanistic rituals).

00:38:35:14 - 00:39:11:32

이러한 그 마고 신화와 바리공주 신화는 여성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창조의 그 시원에 하늘아버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어머니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성 신화와 여성 신화가 이제는 참부모님이 현현하시는 이 시대의 온전히 하늘부모님이 드러나서 그 하늘부모님의 그 두 양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시대를 위한 어떤 예비적인 기대를 마련했다.

These myths of Mago and Princess Bari show us that women, as the source of life, played a role in alleviating human suffering. They also tell us that at the beginning of creation, there was not only a Heavenly Father, but also a Heavenly Mother. Through this, the male and female myths have laid a preliminary foundation for the era now in which True Parents have appeared, in which Heavenly Parent is fully revealed and, thus, the dual characteristics of the masculinity and femininity of Heavenly Parent can also be revealed.

00:39:11:32 - 00:40:17:22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얘기한 그러한 어떤 거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 그 다음 한 나라를 세운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은 정말 모든 집에서 가내에서 여성이 중심이 돼서 하늘을 공경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안수 문화입니다. 정안수,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던 천제 문화는 왕이 중심이 되고 남성이 중심이 돼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사된 음식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데, 정안수 문화는 그러한 큰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에서 여성이 중심이 돼서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어떤 안녕과 평화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박하지만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오면서, 그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I think we can see it this way. Next, there are not only stories about kings who founded a country and stories about some great divine beings like the ones we just talked about. Those people were not the only ones who worshipped Heaven. The Korean Han people really had a culture in which the women in every household took the lead in revering Heaven. That is the Jeongansu culture.

Jeongansu, the Cheonje (Heavenly) culture, is where the king and men took the lead in connecting heaven and earth, offering sacrifices to Heaven, and sharing the offered food in this way to unite the nation. Jeongansu culture developed in this way, but it isn't only about such grand stories. It is also about the women in every household revering Heaven and praying earnestly for the well-being and peace of their family and children with a simple but purer and more earnest heart than anyone else, hoping that their children do well. What kind of heart did these women have?

00:40:17:22 - 00:40:50:33

자녀가 똑바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녀가 목숨을 부지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는 없어요. 자녀가 누구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자녀가 누구보다도 하늘이 보시기에 떳떳한 하늘이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천손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한민족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정안수를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정성을 드렸던 것입니다.

I think it is the heart that wants their children to live the right way. There is no mother who just wants her children to merely survive. She wants them to become more excellent than anyone else. That heart is the heart that wants her children to be honorable in the eyes of Heaven and can call them, "my beloved son" or "my beloved daughter," and live with the pride of being a descendant of Heaven. With such an earnest heart, all the mothers among the Korean Han people in this world stuck to the Jeongansu culture and have offered sincere devotion at dawn for the sake of their children.

00:40:50:33 - 00:41:23:53

그러한 정안수를 중심한 새벽 정성이 나중에 한국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새벽 기도회의 전통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 정성하고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종교 문화 속에서 하늘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뿌리를 형성시켜 왔고요. 이것은 한민족이 형성시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I think that early morning devotion based on such Jeongansu later became the tradition of early

morning prayer meetings when Korean Christianity began, and it still continues with the evening prayer vigils we offer today. In this way, the Korean Han people developed the roots of faith on how to serve Heavenly Parent in various religious cultures. I don't think that the Korean Han people developed it themselves. We can see that Heaven prepared these people to se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rough them.

00:41:23:58 - 00:42:08:57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첨성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신라 시대에 굉장히 국보, 신라의 문화 중에 국보 31호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던 건축물이냐. 이게 진짜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였냐, 아니면 이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장소였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어떤 한국 고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성취나 과학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nother thing I'd like to introduce is the story of Cheomseongdae. This is an example. During the Silla Dynasty, there was a national treasure called Cheomseongdae. It was national treasure number thirty-one in the Silla culture. Cheomseongdae is actually very mysterious. What exactly was this building? Was it an observatory to study constellations for astronomical observations, or was it a place to perform rites to Heaven? There are various opinions, but this building itself is known to show a certain cultural achievement or scientific development of an ancient Korean nation.

00:42:08:57 - 00:42:47:45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첨성대는 결국 무엇을 하던 곳이나면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을 관측하고 하늘을 그냥 관측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의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하늘을 알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에도 그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이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Therefore, Cheomseongdae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in Korea, but what was it used

for? It can be viewed as a place for religious ceremonies where people not only observed the sky, but did so to try to understand Heaven's Will. These religious ceremonies, done with the heart to understand Heaven and the Will, became the root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What is in the root of the Korean Han people being able to develop culture, science and art like this?

00:42:47:49 - 00:43:20:53

하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이러한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민족 하면 고대의 기록에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춤과 노래를 즐긴다는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춤과 노래가. 춤과 노래는 고대의 종교적인 제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교적인 제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단에 제물만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at the root of this brilliant culture is the desire to understand Heaven. In fact, in ancient records, there is a record that the Korean Han people are a people who enjoy singing and dancing.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dancing and singing are important elements of ancient religious ceremonies. Religious ceremonies were the most beautiful acts that people could do to worship Heaven. They did not just place offerings on an altar.

00:43:20:58 - 00:43:52:38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자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작으로 하늘에게 예배하고자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노랫가락이 있고, 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술과 과학과 모든 것이 결국 하늘을 모시고 하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한민족의 신앙의 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They wanted to make the most beautiful sound that people can make. They wanted to play the most beautiful instruments. They wanted to make the most beautiful movements that people can make. They wanted to worship Heaven in this way. All of this became holy songs (songs that shamans sang during rituals) and dances. Accordingly, I want to convey that all art, science and everything else ultimately started from the roots of the Korean Han people's faith, which aimed to

serve and work with Heaven. So now let me wrap things up a bit.

00:43:52:43 - 00:44:29:33

이처럼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러한 뜻은 무엇이였을까요? 선민이라고 하는 건 선택된 민족이죠. 하늘이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길러 나오신 것은 그 민족에게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정말 무거운 축복이기도 하고요. 두려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주시고자 민족을 선택하시지만 그 축복과 함께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What was the meaning of selecting the Korean Han people as the chosen people? The chosen people are a selected race. When Heaven chooses a certain people and raises them, it is no doubt a great blessing to those people. However, that blessing is also very heavy. It is a fearful blessing. God chooses the people to bestow blessings upon, but with that blessing comes a heavy responsibility. We know this through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Therefore, the blessing given to these people are the same.

00:44:29:34 - 00:45:08:09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던 축복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책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할 때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선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길러오신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뤄야지 그 책임을 다해야지 한민족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 하늘이 주시는 축복은 공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배웠어요. 공적인 축복이란 뭐냐.

Didn't the blessing given to Adam and Eve also come with responsibility as human beings, unlike all the other creatures in the world? And when we fulfill that responsibility, we can receive the blessing of becoming Heaven's children. The same is true for the chosen people. So,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God had a purpose in establishing the Korean Han people as the chosen people and raising them. If they fulfill that purpose and complete their responsibility, they will receive this blessing. The blessing that Heaven gives is a public blessing. I learned that through my experiences in faith and through True Parents' words. What is a public blessing?

00:45:08:14 - 00:45:42:19

하늘이 주시는 축복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세운 것도요.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전세계에 전하게 하시기 위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이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심으로써 하늘이 참부모가 현현하게 하시고, 이 참부모를 통해서 전 인류를 품으시고 중생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Heaven's blessings are blessings that are given to you so that you can pass them on to others. The same was true when the Jewish people were established as the chosen people. It wasn't only for their own people. They were to pass on Heaven's blessings to the entire world and to save all of humanity. The Korean Han people were also chosen so Heaven could se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among them, manifest the True Parents, and through them, embrace, save and restore all of humanity.

00:45:42:20 - 00:46:32:31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민족을 이렇게 길러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어떤 섭리의 완성에 동참하게 될 때 그 축복을 온전히 받고 그 축복을 공적 축복으로 돌리면서 선민으로서의 그 책임과 그 영광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참어머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어머님,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오셔서 독생녀 참어머님을 한씨 가계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Therefore, if the Korean Han people come to know, through hearing about history, the meaning of why their people were raised in this way, understand the purpose and uphold it, and truly participate in completing the providence that realizes Heavenly Parent's dream, they will be able to fully receive Heaven's blessing, spread it publicly, and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y and glory as the chosen people. However, if we go back and think about True Mother's words that we read earlier, we can understand that until her Holy birth, Heaven established the Korean Han people as the center and sent her, the only begotten Daughter, through the Han family line.

00:46:32:36 - 00:47:37:51

그리고 참부모님 양위분이 재림주님과 독생녀 참어머님이 축복을 성혼하셔서 참부모로 현현하시고 나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축복받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축복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알곡으로 이제 어떻게 구체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부터 있었던 그 한민족의 뿌리는 결국 어디에 와서 맺혔느냐.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 축복가정들이 한민족이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어떤 한민족이 되었고요. 이 한민족의 책임은 이 참어머님, 지금 이 땅에서 섭리를 경륜 하시는 섭리의 중심축으로서 역할하실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참어머님과 심정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참부모님을 통해 온전히 축복받은 그러한 자녀가 되고 선민이 되어서 이 축복을 온 인류와 나눌 수 있고, 정말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그것이야말로 하늘부모님의 나라고 하늘부모님의 세계이고 한 나라가, 한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And I believe that after the Lord of the Second Coming and the only begotten Daughter, True Mother, received the Blessing by holding the Holy Wedding and manifested as True Parents, the concept of our Korean Han people became concretized as one grain of rice through the blessed True Parents and blessed families. So, where did the roots of the Korean Han people, which have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history, ultimately come to blossom? Our blessed families who received the Blessing through True Parents also became the chosen Korean Han people. The responsibility of this Korean Han people is to center on True Mother, the central axis of the providence who is currently conducting the providence on this earth. They must completely unite with her in heart, ripen into Heaven's children who receive True Parents' complete blessing, and turn into chosen people so that they can share this blessing with all of humanity and truly realize one family of humanity under Heavenly Parent, that is, Heavenly Parent's country, Heavenly Parent's world, one nation, one people.

00:47:37:51 - 00:48:11:11

그 한민족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한민족 대서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 대서사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부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의 감정을,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서를 우리 심정에 어떤 자극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Heaven is telling us that the Korean Han people have a responsibility that they must completely fulfill. And I believe this is the purpose of the *Epic History*. As I said in the beginning, is different from the rational, logical and systematic approach of *Chambumo Ron* (Discourse on the True Parents). It stimulates our emotions, ignites our feelings and moves our hearts.

00:48:11:12 - 00:49:00:29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시의 이 내용은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고요. 뮤지컬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민족, 축복받은 우리의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가야 되는 효정의 문화, 심정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어떤 거대한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한 긴 이야기, 장구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강의 동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을 열고 심정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하늘부모님의 역사를 그 서사를 함께 느껴보시는 그러한 강의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 is why this epic must become a song and resonate widely. It must be shown to us as a musical. Next, the Korean people blessed through True Parents must become the center of hyojeong culture and the culture of heart. I think the history of Heavenly Parent's enormous love, which is the center of this culture, will be transformed into a long story, a grand story. That is why I spoke about this in my first lecture today. I hope that during the following lectures, you will not think with your head, but rather open your heart and feel the epic of the history of Heavenly Parent who searched to find you. I hope you can experience this through the upcoming lectures.

00:49:00:30 - 00:49:02:36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ill be all for now. Thank you.